



04-05 일상, 그 소중한  
 06-07 키다리아저씨와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여행  
 10-11 늘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12-13 우리의 특별한 동행



당신이  
 의미  
 있습니다  
 vol.220

여름  
 2022.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회복지법인 동행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동행  
 사회복지법인 Donghaeng 1993

# 동백원의 봄

글 김홍용

겨울의 끝자락을 헤치고  
온  
봄은 찬찬히 봐야 살며시 다가온다.  
엄병덤병, 왔다 갔다 함서  
해찰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 분다.

동백원에  
봄이 먼저 스며드는 곳은 매화밭.  
50여 그루가 봄을 소곤소곤,  
잔잔한 소곤거림에 살며시 봄이 내려앉는다.

소곤거리는 매화와 달리  
목련은 꽃 몽오리가 터질 때  
봄  
봄  
봄 하는 소리가  
가만히 들으면 들린다.

목련이 아름다운 색깔과 소리로  
봄을 맞이할 때  
그 밑의 서향은 상큼한 봄 내음을 퍼트린다.

목련이 환하게 봄을 비추고  
서향이 향기를 뿌릴 때

노오란 개나리도 째까씩  
봄을 내밀며  
유채밭에도 노란 봄이 앉는다.  
노오란 개나리와  
노란 유채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봄을 만들어 간다.

어느 틈에  
부지런한 벚꽃도 화사한 봄을 피우고  
살구가 먼저 자두도 함께  
그 밑에서는 앵두도 꽃망울을 머금는다.  
모두가 싱그러운 봄의 향연이다.

그 사이  
동백은  
소리 없이 피고 지고  
매달린 봄도 예쁘지만  
떨어져서도 봄을 모으는  
치연하게 아름다운 붉은 동백꽃



비바람에  
화려한 목련이 하늘거리며 흐트러질 때

봄은  
눈을  
가슴을  
마음속 깊은 곳을 적시며  
동백원을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싼다.

그때쯤  
커다란 느티도 움을 틔우며  
봄을 맞이한다.

감과 대추 팽나무는  
티도 안 내고 버티는데  
둔한 건지 늦는 건지 답답하지만  
즈그들도 봄인지는 알것제

봄은 찬찬히 봐야 아름답다.  
말으면 더 향기롭다.

그 봄의 꽃밭에  
주식이는 춤을  
창환이는 노래를  
분도는 뛰어다니며  
봄을 즐기며 논다.

벤치의 상규성은  
졸다 깨다  
깨다 졸다  
비스듬한 눈으로  
나른한 봄을 즐긴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후석이도 봄인지는 알기 때문에  
자꾸 벗으려고 한다.

동백원의 봄은

그냥  
아름답다.

2022.03.25.

이웃과 더불어  
함께  
동행

사회복지법인 Dong'aeng 1963

2022.06. vol.220

발행인 김홍용 편집인 김도요 편집위원 김미애 디자인 박윤지 발행 사회복지법인 동행

주소 59656 여주시 소라면 화양로 1953 전화 061-818-1953 FAX 061-685-3751

홈페이지 <http://www.together63.org>

※ 소식지의 모든 사진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일상, 그 소중함

글 황윤옥 (동백원 사회복지사)

## 불청객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 3월 말, 동백원에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노력했고, 동백원 입주자 모두 잔병치레 없이 지냈기에 급작스러운 확진 소식에 가슴이 타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입주자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해 안내하고 양해를 구한 후, 생활공간과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간호사는 신규 확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매일 아침 PCR 검사를 반복했고, 하루 세 번 발열체크와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불청객의 방문에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코호트

하루에도 몇 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말로만 듣던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활하는 거주공간. 아무리 생활실을 분리하고 마스크를 쓰고 지내도 전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개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은 모두 가정학습으로 대체했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중증장애인들이 온몸으로 답답함을 표현할 때마다 직원들은 고스란히 모든 걸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비좁은 생활공간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일회용 식기에 식사를 해야 하는 힘든 하루하루 속에서도 직원들은 입주자들의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 피할 수 없다면

입주자들은 순차적으로 격리가 해제되었지만 곁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던 생활지도원들의 확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섭식지원, 목욕지원, 기저귀 교체, 어느 하나 입주자와 밀접 접촉이 아닌 업무가 없기에 방호복과 페이스 실드, 두 겹의 장갑도 생활지도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의 감염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상황. “근무에 차질 생기니까 한꺼번에 걸리면 안 되고, 순차적으로 걸려야 해요.” 신규 확진자를 확인하며 근무를 조정하는 직원들은 매일 웃픈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치료사들은 격리가 해제된 입주자들을 위해 다양한 감각놀이와 드라이브를 지원했고, 영양사는 영양 많은 식사와 간식을 매일 제공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입주자를 위한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 일상, 그 소중함

드디어 5월.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덕분에 한 달 간의 비상근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힘겨운 사투 끝에 맞이한 봄이 더없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입주자들은 서서히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며 그간 하지 못했던 외출과 외식, 문화생활, 학교 생활, 소중한 이들과의 만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던 일상, 그 소중함에 코 끝이 찡합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지만, 동백원은 앞으로도 입주자분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키다리아저씨와 행복한 제주여행

글 손행은 (삼혜원 사회복지사)

4월 12일~14일, 삼혜원의 키다리아저씨 (주)동양 우종완 대표님과 함께 3년 만에 다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19년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키다리아저씨는 2년 후 제주도 여행을 약속 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 미루다 드디어 올해 4월, 삼혜원 식구들은 큰맘 먹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의 바깥나들이에 신이 난 아이들은 여행을 위해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신발도 새로 사고, 용돈도 두둑이 챙겨,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소인국 테마파크, 더마파크 마상공연, 신창 풍차 해안, 스누피 가든, 유채꽃 프라자 등 제주도의 핫플레이스에서 제주도를 온몸으로 맘껏 즐겼습니다.



키다리아저씨와 민채



여행의 시작은 공항~  
우리 지슬이 여배우는 킴 나나요? ㅋㅋ



Welcome 제주~ 어서웁서여~~



여행은 즐거워~ 눈웃음이 많은 우리 ♥



빨주노초파랑보  
무지개보다 더 예쁜 우리 딸들  
  
세상의 주인공인  
멋진 우리 아들들

제주 느낌 충만한 꽃 모자 쓰고  
유채꽃밭에서...  
누가 꽃이지??



삼혜원 가족 전체가 함께한 여행  
와~ 정말 짝 찰다~  
  
제주 바닷가에 새긴  
삼혜원 FOREVER~♡

“남는 건 사진이다!” 요즘 유행하는 SNS감성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여행 전부터 사진 구도를 계산하던 아이들 덕분에, 포토북을 멋지게 장식할 사진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눈과 마음에 담았던 제주도 가족 여행. 멋진 공항패션을 선보였던 지슬이는 매일 같이 포토북을 펼쳐 “지슬이 있어”를 외치며 또 다시 제주도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삼혜원 가족들에게 평생 간직할 행복한 추억을 선물해주신 (주)동양 우종완 대표님, 해왕해운(주) 김동성 대표님 고맙습니다.

# 가나헌 백화점 오픈!

글 안진희 (가나헌 사회복지사)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가나헌 백화점이 오픈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 확산으로 힘들어했던 이용인과 직원들을 위로하고, 한동안 지역사회활동이 단절되어 욕구가 좌절되었을 이용인에게 해방감을 선사하고자 마련된 소중한 이벤트!

그리고 이 날을 계기로 이용인이 지역사회로 나아가 코로나 상황전과 같이 온전히 지역사회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가나 헌의 소망이 담긴 이벤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왁자지껄 쿵쾅쿵쾅. “행복은 가까이! 행복을 쇼핑 하자!”

악세사리 매장을 맡은 저는 고객 유치를 위해 힘쓴 만큼 물건을 들었다 놔다 하는 이용인의 손길이 점주인 나의 심장을 들었다 놔다 하는 것 같아 진땀을 뺐습니다.

‘왜 사람은 손가락이 10개 밖에 없어서 반지를 10개 밖에 끼보지 못할까?’, ‘이렇게 선글라스가 잘 팔릴 줄 알았더라면 선글라스만 판매할걸!’, 팔리지 않는 물건들을 보면 속이 타고, 잘 팔리는 물건들을 보면 내심 나의 안목에 뿌듯함을 느끼고, 고객은 물건을 구입하며 행복을 충전하고! 점주는 물건을 팔며 행복을 충전했던 날!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날의 즐겁고 행복했던 일을 생생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옥적리에 백화점을 여는 작은 이벤트였지만 후원자, 기획자, 진행자, 참여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고 진행하여 정말 성대한 백화점 오픈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나헌 백화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를 가진 장애인의 날에 딱 맞는 이벤트였습니다. 장애인에게만 특별한 날이 아닌, 그날 그 자리를 만들어준 모두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 함께이기에 즐거운 동백원

글 정경화 (동백원 사회복지사)

만물이 소생하는 4월, 푸르게 돌아난 잔디밭에 모여 봄바람을 쐬는 동백원 가족들에게서 생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이 4월에 있지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흥이 넘치는 노래자랑부터 맛있는 간식을 나누는 음식마당까지, 동백원 직원들은 바쁜 걸음으로 장애인의 날을 준비합니다.

음향 확인하랴, 음식 준비하랴 분주한 직원들 사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던 이재경 어르신께서 “하늘도 축하해 주려고 이렇게 맑은갑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분주하던 마음이 마법처럼 차분해지고, 즐거운 마음이 자리합니다.

올해는 사생대회를 열어 지난 일 년 동안 입주자와 직원이 함께 완성한 그림을 전시하고,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풍선을 맞대고 꼭 끌어안으며 얼굴을 한번 더 맞대고, 응원하고 축하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햇살이 눈부서 즐겁고,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즐거웠습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작동하지 않아 동동거리느라 즐겁고, 우열을 가리기 힘든 노래자랑의 심사를 하느라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동백원은 모두가 함께이기에 즐거운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이기에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깁니다.



# 아름다운 이별, 행복한 만남

글 이광식 (동행빌리지 사회복지사)

집으로...

“세정이가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네요.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집에서 같이 살아보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어린 아들을 시설에 맡겨두었으니 마음 한편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가슴에 커다란 짐을 안고 살아왔을 겁니다. 아버지는 12년 만에 세정 씨와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2010년,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설에 입소한 세정 씨에게 아버지는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건강이 안 좋을 때에도 주말이면 꼭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설로 돌아가는 날이면 세정 씨는 집을 나갈 때부터 심한 투정을 부렸습니다. 마치 “아빠랑 살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억지로 떼어놓고 돌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아버지의 어깨는 항상 처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다시 걸을 일이 없으니 세정 씨가 투정 부릴 일도, 아버지의 어깨가 처질 일도 없을 겁니다. 세정 씨에게 동행빌리지가 잠시 집을 떠나 쉬어가는 쉼터가 될 수 있어 다행입니다.

행복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동행빌리지에서 세정 씨를 지원하였던 사회복지사는 세정 씨가 잘 지내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을 찾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아버님께 미리 안내드렸던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담당자와도 미리 소통해 동행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민자치 센터에 가서 서비스 신청까지 마무리하니 아버님은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행빌리지는 누군가에겐 평생 살 집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자립을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며, 누군가에겐 가족의 품을 떠나 잠시 살다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그 개인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빌리지는 최대한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세정님과 아버님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 「늘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기관 지정

글 양현정 (늘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사회복지사)

발달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재활시설에 취업하거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로능력이 있어 취업이 되면 정말 좋지만,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지역 내 주간보호센터에 입소 대기열을 길어 놓습니다. 지역 내 주간보호센터는 5개소로 현재 정원이 모두 차있어 1~2년 전부터 대기 등록을 해놓아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잘 활용해 다양한 지역사회 이용시설을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몰라 가사서비스나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늘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는 세정 씨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을 보내는 발달장애인에게 즐거운 하루,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늘 곁에서 따뜻한 봄이 되어주고 싶은 늘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는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보호자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기관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 안내

- 만 18세 ~ 만 64세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신청불가 : 학교 방과후 이용자, 거주시설 이용자

## 서비스 안내



여러가지 모임  
(독서모임,  
자조모임)



체육활동  
(탁구, 볼링, 헬스,  
뉴스포츠, 배드민턴)



문화생활  
(연극, 공연,  
영화, 전시회)



취미활동  
(난타, 미술, 우쿨렐레,  
원예, 도자기공예)



직업체험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제공)



자립생활준비  
(요리활동, 병원,  
공공기관이용  
자립기술교육)

## 이용방법 · 시간

- 단축형 85시간
- 기본형 125시간 (활동지원시간 22시간 차감)
- 확장형 165시간 (활동지원시간 56시간 차감)

\*제공인력 1명이 1-2명의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매칭됩니다.

\*등하원 차량 운행, 점심식사 및 간식 제공합니다.

# 우리의 특별한 동행

글 안지현 (가나현 사회복지사)

저는 「사회복지법인 동행」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가나현에 근무하고 있는 안지현 사회복지사입니다. 봄의 색깔이 가장 짙어지는 5월,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회복지법인 동행에서 근무하는 저희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 특별한 곳입니다. 동행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님과 여동생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과의 연결고리는 자연스럽게 맺어졌습니다. 시어머님은 우리 가족 중 가장 먼저 동행에서 근무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동백원에서 근무하며 보고 느낀 것들을 아들과 나누며 남편 역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동백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행 입사 후 처음 갔던 법인 직원 연수에서 남편과 인연이 닿아 결혼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동행에서 일하는 부부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여수에서 가장 큰 사회복지법인에 취직했다며 좋아하던 저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여동생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삼해원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동행을 공통 삼아 서로를 잘 알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든든한 동료들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근무를 할수록 동행의 미션과 비전, 투명경영, 법인 운영 체계, 직원 복지에서 너무나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트고 결혼까지 이어져 법인 내 가족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행은 남편과 저를 부부로 만들어준 소중한 곳이고, 저희 가족이 모두 애사심을 가지고 있는 멋진 직장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한 만큼 앞으로도 동행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포에버! 동행 포에버!



왼쪽부터 동백원 정용남(시어머니), 삼해원 나승현(남편), 가나현 안지현(부인), 삼해원 안소진(동생)

## 사내커플에서 부부로



송정인더스트리 김영화 원장  
♥ 가나현 김연남 국장



동백원 오승희 간호사  
♥삼혜원 박홍의 사회복지사



삼혜원 김수환 사회복지사  
♥ 동행빌리지 전지현 사회복지사



동백원 채준석 사회복지사  
♥삼혜원 손행은 사회복지사

## 가족에서 동료로



♥엄마와 삼남매♥  
삼혜원 장미자 조리원  
&송정인더스트리 직원  
김재현, 김경인, 김경자



♥엄마와 아들♥  
동행빌리지 박승수 사회복지사  
&송정인더스트리 송연화 위생원

# 나눔 릴레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값진 나눔이 사회복지법인 동행에도 함께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나현**

금호미쓰이화학에서 2022년 우프학교 프로그램 사업비 600만 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금호미쓰이화학 피재규 부장님과 이현모 차장님께서 입학식에 참석하시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소중히 이어가길 바랍니다.



**동백원**

참한우 정육식당(여수시 안산동)에서 동백원 가족들의 외식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이 어려웠던 동백원 가족들에게 한 달에 한번 맛있는 야채불고기와 갈비탕을 약속해주신 박종식 사장님! 감사합니다.



**동행빌리지**

국제와이즈맨 여수좌수영클럽에서 동행빌리지 입주자의 건강과 재할을 위해 소중한 후원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입주자들이 재할 훈련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혜원**

청춘대게(여수시 학동) 전정태 사장님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을 위해 대게 50kg를 후원해주셨습니다.  
맛있는 대게를 손질해 줄 선생님들 고생하신다며 추가로 후원금 까지 챙겨주신 센스. 대게가 되게되게 맛있었습니다. ^^

##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

10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 '동행' 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아동과 장애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동행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한결같은 그 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 6월에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 25주년 (7명)

김명희 김창영 오승범 오화원 윤행재 이양재 이영강

#### 20주년 (18명)

김대휘 김동식 김동욱 김미경 김산의 김순금 김정기 박상우 박연주 박영모 변윤정 여명희 오정아 이기현 이은영  
임종훈 전숙희 조인천

#### 15주년 (18명)

강은정 고봉순 김미애 김성철 김홍언 남하영 박만규 박완진 방윤섭 서재정 손행현 이금순 이부규 이선숙 이여진  
이우용 이현미 최윤희

#### 10주년 (40명)

강성만 구미란 권혁민 김금숙 김기순 김대련 김대련 김명이 김미라 김민희 김영훈 김용욱 김윤석 김정만 류재민  
박근효 박만택 박세희 박충배 손영훈 송하중 오석기 유지현 유효성 윤서연 이승호 이연식 이영훈 이종수 정경화  
정급태 정명화 정숙이 정은정 정지애 조광훈 최동혁 추창엽 황상호 (유)명전사

#### 5주년 (44명)

곽현태 구재혁 김경노 김대용 김민찬 김상연 김순중 김은주 김중현 김준형 김진아 김진희 김청명 남래호 박만수  
박용희 박유영 박호용 배철수 손문명 신경미 신하원 안일섭 여창인 유장희 이경자 이민영 이민주 이승기 이임규  
임경진 임병선 장의진 전봉선 정명식 정의호 정주옥 정준오 주지영 주태식 홍승우 고려선박수리센터 승덕종합건설(주)  
클리수 모이플론 여천점

### 후원 첫돌을 감사드립니다. (68명) 소중한 나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년 4월~6월에 후원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강승욱 강점숙 강지울 강태양 강혜수 김가람 김덕래 김미선 김미정 김세은 김영주 김명희 김은솔 김은진 김종업  
김진석 김진숙 김태경 김태경 김행자 문관우 박 결 박상국 박선주 박윤지 박지성 박지현 박현욱 서기열 서민경  
서용준 서혜은 손은아 송태경 신영숙 심주현 심중택 심현두 오순자 우복란 이보라 이선숙 이성규 이성우 이 완  
이임규 이충경 정세영 정옥희 정태근 조원재 조은영 조현진 조현철 조홍익 주연우 차정은 최미숙 최새봄 최창순  
최혜경 하태용 한정수 한정우 홍승남 (유)소아르 (주)대경M&I 간이역 소호점

### 22년 3월 ~ 22년 5월 신규후원자 (118명)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어 정말 기쁩니다.

강재황 강지혜 고대권 고영기 고 옥 고은별 고종화 고춘주 곽승호 권은아 권은애 김경미 김경심 김경완 김경준  
김미경 김미선 김미아 김민지 김선국 김성민 김성심 김승우 김애숙 김영립 김영수 김재호 김정순 김종근 김지원  
김진경 김진아 김진희 김태우 김하영 김하나 김향진 김현익 김혜호 김호영 남경란 박근영 박옥이 박용남 박종이  
박주현 박지인 박충현 박현아 박혜림 변이규 변정규 변지연 서정규 서현숙 성 율 성혜진 손형래 신선봉 신현리  
심상일 심지원 안민하 안상현 오승희 우명호 우영훈 유광석 유서희 유송이 유지용 유진아 윤수빈 윤재서 윤창완  
윤 청 윤효빈 이대선 이병달 이세영 이아운 이정실 이현희 임상태 임주영 임주는 임준섭 임중연 임채민 임한솔  
장호영 전소현 정용훈 정중은 정진선 정재경 조은숙 조재권 조현욱 채수현 최경호 최병준 최선의 최정신 추승혁  
한무현 한정희 허윤옥 허종인 홍성수 (유)삼보특수 건강이야기 순천매산고1-1 순천매산고2-3 이마트24R서순천IC점  
일급자동차부품정비공업사 참한우정육식당 태백산맥

### 22년 3월 ~ 22년 5월 더 큰 사랑을 결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액후원자 (9명)

김혜정 10,000원 → 30,000원 나정인 10,000원 → 20,000원 여창인 30,000원 → 60,000원 이미영 30,000원 → 40,000원  
정경화 10,000원 → 30,000원 조현진 10,000원 → 30,000원 최영자 10,000원 → 20,000원 황윤욱 10,000원 → 30,000원  
황지원 10,000원 → 20,000원

## 직원동정

### 장기근속자 (2022년 6월 기준)

- 20주년 이정숙(송정인더스트리), 전숙희(동백원 활동보조사업기관), 정완선(가나헌)
- 10주년 김지영(가나헌)
- 5주년 김미정(가나헌), 이은순(동백원)

### 수상의기쁨 축하드립니다!

- 4/5 제16회 사회복지사의날 여수시장표창 (가나헌 안진희, 동행빌리지 박승수)
- 4/5 제16회 사회복지사의날 여수시의회 의장상 (삼해원 맹정애)
- 4/5 제16회 사회복지사의날 여수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동백원 진실)
- 4/5 제42회 장애인의날 여수시장표창 (가나헌 주지영)
- 4/20 제42회 장애인의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상 (가나헌 이효양, 동백원 임희숙, 동행빌리지 양재명)


### 배움의기쁨

- 3/15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원 (동백원 김민지, 심지원)
  - 4/21~22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제1기 발달장애인지원 역량강화과정 교육 (동행주간보호센터 이고정)
  - 5/4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인을 위한 문제해결능력향상교육 (가나헌 서현숙, 안지현, 윤효빈)
- 그 외 25개 교육에 96명의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 동행소식



### [동백원]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확! 달라진 세미나실에서 만나요!

동백원에서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세미나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석면을 제거한 후 천장을 노출하고,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확 달라진 세미나실. 천장형 에어컨을 교체하니 덥고 습한 여름이 오는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달라진 세미나실은 입주자들의 전천후 프로그램 공간은 물론 직원들이 회의하고 교육받는 공간으로도 활용 만점입니다.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세미나실에서 동백원 가족들은 앞으로 더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행소식

 장애인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 순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평가서류



### [꿈을키우는세상] 4/5 위탁운영자수탁법인선정

꿈을키우는세상이 2022년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심사에서 높은 점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률과 근로인 채용 및 최저 임금 인상에 좋은 평가와 극찬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 [그릅홈] 4/6 봄향기가득머금은상반기계절활동

장애인공동생활가정 5개소에서 봄을 맞이하여 상반기 계절활동 다녀왔습니다. ♪ 봄바람 휘날리며~ 훗날리는 벚꽃잎이 ♪♪ 너무도 아름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꽃향기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함께 간 사람들에 취하며,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였습니다.



### [동백원 활동보조사업기관] 4/12 장기근속시상식

장기근속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자 6명, 5년 이상 근무자 22명에게 표창장 및 꽃다발로 우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해주신 활동지원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년 없는 활동보조 100세까지 가자!



### [심혜원] 4/19 금쪽같은내소비

2022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등학생 아동들의 돈 관리 기술 향상을 위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진행합니다. 소비에 대한 자기 결정과 매월 진행되는 예결산을 통해 효율적인 소비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 고등학생들의 돈 관리 기술 향상을 위하여 파이팅!!



[송정인더스트리] 5/20이제다시 시작

코로나19로 그동안 전체 휴관 및 부분 휴관이 계속되어 근로 장애인들과 종사자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정상 운영으로 오랜만에 시끌시끌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다시 모두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동행주간보호센터] 5/3~5/4 "소록아 나랑 놀자"

국립장성 숲체원으로 떠난 1박 2일 체험캠프~ 다양한 자연소재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숲을 탐방하며 초록의 싱그러움속에서 진행된 숲 오감체험은 움츠리고 있던 몸과 마음에 활기를 주었습니다. 봄아 반가워!!



[동행주간보호센터] 5/10 탁구교실 오픈!!

코로나19로 신체활동이 많이 줄었던 요즘, 움츠러든 몸을 깨울 수 있는 탁구 교실을 전남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친구들의 일취월장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주변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행빌리지] 첫걸음을 내디딘 삼총사!

좋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도전하자!  
동행빌리지 청춘들의 도전이 취업이라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김주영, 김효명, 손호준 입주자! 청춘들의 힘찬 걸음을 응원합니다♥

# 우리도 아파트에 삽니다

## 10살 듣직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희망



우리 동네 시립도서관에 책이 없다면?

-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내 자녀가 학교에 다닌다면?

- 학교 도서관 구입희망 도서에 책을 추천해주세요!

### YES24.COM 생생 후기

★★★★★

단숨에 읽어내려간 책. 쉽고 재미있지만 전달하는 의미가 진하다.

하\*\*\*\*드 2021-11-28

★★★★★

함께 사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 가고 있는 내용이 담긴 책 ...

도\* 2021-11-15

★★★★★

가볍게 주문했지만 결코 가볍게 생각할수 없는 내용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m\*\*\*\*o 2021-11-16

★★★★★

청소년들이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은 책이네요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이 많이 돼요

s\*\*o 2021-11-30



핸드폰이나 전자책 리더기로 더 간편하게! YES24 북클럽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구입처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동행 | 여주시 소라면 화양로 1953 | 061-818-1953 / <http://www.together63.kr>

# 동행을 소개해주세요!

“내가 후원해보니까 동행 믿을만하더라”  
 “내가 후원해보니까 동행 사회복지 잘하더라”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렇게 동행을 소개해주시면  
 아동과 장애인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 매월 만원이 가치있게 쓰이는 곳 사회복지법인 동행

개인정보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용카드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동의하며 CMS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 이체일은 매월 1일이며, 잔고가 부족할 경우 11일 또는 22일에 이체됩니다.  
 · 동행후원금은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010-2344-0678로  
 문자나 카카오톡(아이디dh1963)으로 보내시면 더욱 편리해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으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